

'휘발유 가격' 광주 내리고 전남 올랐다

전주 대비 광주 0.82원 ↓ · 전남 0.04원 ↑

경유 가격은 광주·전남 1.23원·0.03원 ↓

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광주·전남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경유 가격은 두 지역 모두 하락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주(17-21일) 광주지역 주유소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1.74원으로 둘째주(10-14일) 1천622.56원 대비 0.82원 하락했다.

반면 전남지역 주유소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셋째주 1천637.7원으로 둘째주(1천637.66원)보다 0.04원 소폭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달 다섯째주부터 6주간 상승세를 이어오다 광주의 경우 지난 주인 3월 둘째주부터 하락했다.

광주지역 ℓ당 휘발유값은 3월 첫째주 1천623.07원에서 둘째주 1천622.56원으로 0.51원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주째 내림세로 나타났다.

3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38.2원으로 전주(1천633.16원)보다 0.96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최고가 지역인

서울과 최저가 지역인 대구에서도 하락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주유소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713.39원으로 전주(1천716.22원) 대비 2.83원 하락했으며 대구지역 판매가격은 전주 1천608.43원 대비 1.9원 하락한 1천606.53원이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모두 경유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했다.

광주지역 주유소 ℓ당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19.07원으로 전주(1천520.3원) 대비 1.23원, 전남지역은 1천537.99원으로 전주(1천538.02원) 대비 0.03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ℓ당 경유 평균 판매가격 1천538.17원보다 광주·전남지역은 각각 19.1원·0.18원 낮다.

두바이유의 3월 셋째주 배럴당 가격은 86.2달러로 전주(83.2달러) 대비 2.9달러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요 산유국 수출 및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 정유 시설 피격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8주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천638.47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전국순회설명회

27일 목포상의 등 38곳서 맞춤형 지원제도 등 소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8만여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

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목포노동청, 전남 서부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출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24일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서부 지역 안전문화 실천을 위해 안전문화 추진단 출범식과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단인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목포상공회의소, 무안군청,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32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안전문화 실천 '안전이 일상에 스며든다'는 주제로 '안(安)머들기' 퍼포먼스를 진행, '안전의식 고양과 안전문화 확산' 실천을 다짐하며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추진단은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유도과 산업현장 안전문화 관행 조성 등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안전이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로또복권 (제 1112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6 20 26 36 42 44 /보너스 24		
1등	2,804,455,650	6개숫자 일치
2등	79,221,912	5개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19,043	5개숫자 일치
4등	50,000	4개숫자 일치
5등	5,000	3개숫자 일치

광주시, 中企 가족친화경영 200만원 지원

내달 15-19일 공모...30곳 선정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2024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각 기업이 제출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 제안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최근 2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 실적이 있는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2019-2023년 공모 사업 수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5일부터 19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이며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cherry75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투데이경제



해양에너지, 올해 첫 ESG위원회 개최

해양에너지는 24일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 경영환경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발맞춰 지난 20일 하니은행 광주지점 라운지 1988에서 제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회사 10대 뉴스 ▲2023년 ESG경영 실적 ▲2024년 ESG위원회 운영계획 ▲2024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사회공헌활동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ESG위원회는 회사 신규 사업과 글로벌 실물자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인증 추진 현황, ESG경영 및 작업장 보건·안전·환경 경영 실적 등을 공유하고 각종 전문가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은 ▲교육·장학 ▲가사안전 ▲임직원 및 시민참여 ▲지역사회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의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솔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 윤종일 교수 초청 조찬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4일 "지난 22일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홀에서 카이스트 윤종일 교수를 초청 '탄소중립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642회 규모 조찬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종일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과 무탄소 에너지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만 우리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 국가로 탄소 저감이 어려운 상황으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EU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작했고, 국가 간 무역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상품을 만드는 데 투입한 에너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임재만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010-6670-98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덱)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용4억)

062-382-55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전남

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커넥트)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